신년 인사말

“AI시대 선도”

단 하루도 꿈꾸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 꿈은 곧 희망이었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부침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게 걸어 온 지난 30년 세월 속에서 현대불교신문은 멈추지 않고 꿈을 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현대불교신문은 오래도록 기억될 의미 있는 성과들을 이뤄냈습니다. 한국불교기자상 대상과 조계종 불교언론문화상 우수상을 수상하며,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수준의 언론임을 또다시 입증했습니다.

불교계 최초로 상담봇(해심이) 등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를 도입하고, AI 그림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뉴미디어 이슈를 선도해 왔습니다. 나아가 AI 시대에 발맞춘 언론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인스타그램과 뉴스클리핑 등 온라인 활동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불교계 대표 디지털 미디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불교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2025년 3월 영남 지역을 휩쓴 초대형 산불로 사찰들이 큰 피해를 입었을 당시 불교계 언론으로는 가장 먼저 피해복구기금을 조계종에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생명나눔실천본부와 공동으로 6월 캄보디아 시엠립을 찾아 의료물품을 지원하는 등 부처님 자비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일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꿈꾸는 세상은 염화미소(拈華微笑)로 가득한 부처님 세상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서로가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현대불교신문은 2026년 한 해도 쉼 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AI의 대전환 시대에 놓여있습니다. 이 시대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 현대불교신문은 ‘Digital First’ 경영 기반을 본격적으로 구축할 것입니다. 종이신문은 ‘프리미엄 정보지’로 발전시키고, 인터넷·유튜브·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강화해 뉴스 접근성을 확장함으로써 종합 미디어 채널로 도약할 것입니다.

올해는 또 현대불교 후원회(현불회)를 공식 발족해 독자와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불교와 불자들의 의제를 만들어 내는 ‘불교 공동체’의 새로운 플랫폼 구축에도 나설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불교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최고의 언론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부정제(馬不停蹄)’. 달리는 말은 발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불은(佛恩)으로 열어주신 길을 따라 병오년 붉은 말의 해에도 멈추지 않고 달리며 언론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수행과 신행, 그리고 삶 속에서 현대불교신문이 화룡점정(畵龍點睛)이 되기를 두 손 모아 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이사

태고종, ‘영산문화축제’ 연다

제155회 태고종 중앙종회 정기회
2026년도 종단 사업계획 승인해
58억 원 규모 종단 예산 결의도
16대 후반기 종회의장 법륜 스님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12월 23일 태고종 중앙종회 제155회 정기회에서 후반기 중앙종회의장으로 선출된 법륜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올해 광화문 광장에서 1만여 종도가 보여준 환희를 내년에는 ‘영산문화축제’로 이어간다.

태고종은 12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원 대회의실에서 제155회 정기중앙종회를 열고 후반기 원 구성을 비롯해 내년도 사업계획 및 종단 예산 인준 등의 안건을 결의했다.

이날 총무원은 2026년도에 추진하는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중앙종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태고종은 지난 10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봉행한 영산재와 국제수계법회가 많은 종도들과 국민들의 호응 속에 회향한 만큼, 내년에도 열기를 이어 갈 수 있는 ‘영산문화축제’를 봉행한다. 개최 시기는 10월 중이며 태고종 대표 무형유산인 영산재를 대중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종단 내부 시스템의 보완·구축도 진행된다. ‘승려 의무금 자동납부 제도’ 도입을 통해 승려 의무금 납부를 활성화하고, 납부가 어려운 종도들에게는 일시 납부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종단 민원 결재시스템 전산화 작업’은 민원 서류 등의 지방교구 발급 종류를 늘리고 결재 시스템을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년도 종단 세입세출 예산안도 논의 끝에 원안대로 승인됐다. 총무원 예산은 48억 7000여 만원, 한국불교신문사 예산은 2억 8000여 만원, 월간불교사는 2억 2000여 만원 등 총 58억 7000여 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앞서 태고종 중앙종회는 후반기 중앙종회의장과 수석·차석부의장을 선출하고 후반기 원을 구성했다.

16대 후반기 중앙종회의장 선거에는 법륜 스님과 원명 스님이 입후보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법륜 스님이 32표로 당선됐다. 당선 직후 법륜 스님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중앙종회 운영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 스님들의 고견을 잘 경청하겠다”면서 “많이 부족하다. 의원 스님들과 함께 가겠다”고 짧은 소감을 전했다.

수석·차석부의장에는 원일 스님과 혜우 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후반기 중앙종회는 종단의 미래를 향한 더욱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될 것”이라며 “중앙종회가 앞으로도 명실상부한 종단의 최고 대의기구로서 종단 운영의 중심을 굳건히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1면에서 이어짐

종헌에 따르면 종정은 종단의 신성을 상징하며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 권위와 지위를 가진다. 승납 45년, 연령 70세 이상, 대종사 법계를 갖춰야 한다. 전계대화상을 위촉할 수 있으며 종헌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과 징계, 또는 종단 징계에 대한 사면, 경감, 복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종단 비상시에는 원로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의 제청으로 중앙종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다. 종정의 임기는 5년이며 한 차례 중임이 가능하다.

종정은 임기 만료 3개월 전 또는 유고 시 원로회의 의장이 소집하는 종정추대회의에서 추대된다. 종정추대회의에는 원로회의 의원 전원과 중앙종회의장, 총무원장, 호계원장이 참여하며,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결정된다. 현 종정 스님의 임기는 내후년 3월까지다.

관음종도 총무원장 법명 스님의 임기가 7월 중 만료됨에 따라 차기 총무원장의 선임이 이뤄진다. 관음종은 종헌종법 상 종정이 총무원장을 지명 및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어 별도의 선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올해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가 열리는 해이다. 그런 만큼 불자 정치인들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가 관심사다. 현재 서울시장에는 불자 정치인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각회 회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찌감치 출마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특히 김영배 의원은 출사표를 던진 직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출마 선언에서 약속한 ‘10분 역세권 도시’ 등의 구상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원로 불자 정치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부의장은 2025년 12월 8일 열린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상당 부분 출마를 준비했다”며 “가급적 빠르게 신년 초에는 출마 여부를 결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대 맞는 재가자 포살’…조계종 종책 공모 시상

12월 24일, 공모전 시상식 개최
실현 가능 · 실제 효과 종책 위주
한국불교 브랜드화 종책도 다수
사회·재정 등 4개 분야 55건 접수



조계종 종책 개발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조계종연구소가 시행한 ‘종책제안서 공모전’에서 봉녕사 향림 스님이 제안한 ‘재가자 포살 실행 프로그램’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2월 24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열린 ‘종책제안서 공모전’ 시상식에서 향림 스님을 비롯한 우수장·장려상 수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했다.〈사진〉 최우수상에게는 500만원, 우수상에는 200만원, 장려상에는 50만원의 상금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과 총무원 총무부장 성웅 스님, 기획실장 묘장 스님, 조계종연구소장 원철 스님이 함께했다.

진우 스님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종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여러 의견을 듣고자 이번 공모전을 개최했다”며 “기대 이상으로 수준 높은 제언들이 나와 뿌듯하다.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주경 스님도 “이번 공모전은 격변하는 사회 속에서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찰하고, 구체적인 종단 종책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용적 제안들이 실제 종단 종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종단과 해당 부서는 수상자들과 긴밀하게 논의·협력해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향림 스님의 ‘재가자 포살 실행 프로그램’은 포살을 통한 지계 중심의 신행 회복을 위한 것이다. 매월 1회 현대인의 생활 양식에 맞춰 계율을 독송하고 명상과 경전 독송을 진행하는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을 담고 있다. 이는 명상과 체험 등 실천 중심의 신행 방식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시대적 변화에 부합한 제안으로 평가됐다.

향림 스님은 “승가에서는 정기적인 포살이 이뤄지는데 재가자들 대상의 포살은 정례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러다보니 계율을 점검하고, 참회를 통해 청정성을 회복하는 기회가 부족한 것 같아 재가자들에 맞춘 현대적 포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수상은 ‘K-Seon 글로벌 사업단 설립(안주영)’과 ‘사찰음식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전략(이승훈)’ ‘박물관에서 만난 부처님(이재호)’ ‘불교문화 디자인 공모전 개최를 통한 현대적 포교 전략(수월 스님)’ ‘불교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립 및 재정통합체계 구축 방안(이미라)’이 수상했다.

이밖에도 ‘AI시대 신행의 변화와 대한불교조계종의 역할 모색(박훈)’ 등 10명이 장려상을 받았다.

김내영 기자

